

결 정

2018 - 300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2.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3.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17년 12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 「테이 소속사 대표 자살...두 번째 비극」, 매경닷컴(mk.co.kr) 12월 10일자 「가수 테이 소속사 대표 자살...“경제적으로 힘들다”」,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0일자 「테이 소속사 대표 자살...이유는 생활고」 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스포츠서울, 매경닷컴,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screenshot shows the Sports Seoul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site logo and a green banner for '나눔스퀘어 Light Extra Bold 추가!'. Below the banner, there are utility buttons for '구독하기', '이름자 한마디', and a timestamp '12-10 10:05 편집'.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article with a photo of a woman and the headline '청하, 과감한 다리 찢기에 '입이 짝''. Below the headline, there is a list of news items, with the first item highlighted in red: '테이 소속사 대표 자살...두 번째 비극'. To the right of the main article, there is a 'HOT 클릭뉴스!' section with several smaller article thumbnails and titles, including '야구 선수보다 더 유명한 장모님', '레벨 조이, 예사롭지 않은 섹시미', '김소연 부부의 비주얼 셀카', and '비운세, 짧은 원피스에 드러난 몸매'.

<캡처시각 17. 12. 10. 11:18>

(스포츠서울)= 『[SS이슈]“벌써 두 번째” 가수 테이, 매니저 자살 그리고 안타까움
입력2017-12-10 00:37 수정2017-12-10 0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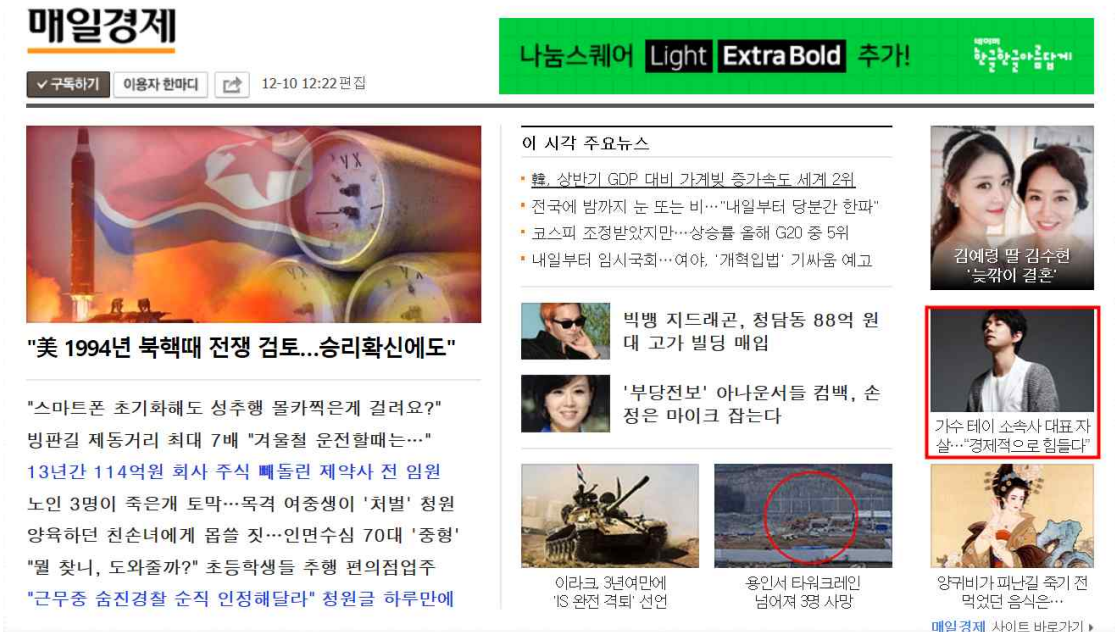
[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가수 테이가 슬픔에 빠졌다.

지난 2009년 함께 일을 하던 매니저 박모씨에 이어 지난 2일에는 현 소속사 대표 염모씨(35)가 목숨을 끊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성동구 금호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염씨의 집을 찾은 지인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염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염씨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하략)

whice1@sportsseoul.com』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79235>>



<캡처시각 17. 12. 10. 12:44>

(매경닷컴)= 『가수 테이 소속사 대표 숨진 채 발견...“경제적으로 힘들다”

기사입력 2017.12.10 08:18:39 | 최종수정 2017.12.10 09:07:54

가수 테이의 소속사 대표 A씨(35)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9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시신은 집을 방문한 지인에 의해 발견됐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

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하락)

kiki2022@mk.co.kr』

<<http://star.mk.co.kr/v2/view.php?year=2017&no=816558>>



<캡처시각 17. 12. 10. 12:55>

(헤럴드경제)= 『테이 소속사 대표 자살...이유는 생활고

기사입력 2017-12-10 09:21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테이 소속사 대표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테이 소속사 대표 엄 모씨는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보이는 쪽지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하락)

onlinenews@heraldcorp.com』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210000017&nt=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가수 테이의 소속사 대표가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굳이 가독성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 ‘자살’이란 단어를 넣었다. 특히 매경닷컴은 원래 제목에 ‘자살’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처리했다.

‘자살’ 또는 ‘자살 시도’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기에 이를 언론매체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사회적 합의이자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정신이다. 더군다나 표제에는 삼가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송 호	정송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강 희	강희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